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구약 시대의 복음서라 할 만큼 이방 전도에 초점을 맞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교회는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를 중심으로 정체성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요나는 솔로몬 시대만큼 번영하던 시기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이며 이름 그대로 순수하고 맑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등지는 도망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명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주어진 사명의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 증후군 5가지

1. 피함
2. 내려감
3. 잘못된 타이밍
4. 잠에 빠짐
5. 지목됨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요나 증후군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요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는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 하나님의 사람
2. 하나님 경외의 사람
3. 문제를 깨닫는 사람
4. 책임의 사람
5. 거듭남의 도전자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도전, 또 다른 영적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1. 기도가 답인 것을 깨닫게 된다.
2. 성전 중심으로 돌아오다.
3. 감사를 회복하다.
4. 사명을 회복하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 1장 8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6/19(월)	6/20(화)	6/21(수)	6/22(목)	6/23(금)	6/24(토)	6/25(주일)
욥 34-38	욥 39-42	시 1-9	시 10-17	시 18-22	시 23-29	시 30-34

QT

이번 주 QT 말씀

6/19(월)	6/20(화)	6/21(수)	6/22(목)	6/23(금)	6/24(토)	6/25(주일)
애 3:40-54	애 3:55-66	애 4:1-10	애 4:11-22	애 5:1-14	애 5:15-22	행 1:1-11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내 신앙의 현주소를 10 단계로 놓고 보았을 때 몇 단계라 여겨지나요? 중간인 5는 없는 수로 여기고 점수를 매겨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와 결단은 무엇인가요?
3. 사명과 봉사는 성도들이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않게 하는 생명의 밭줄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봉사에 행복을 느끼고 있나요? 봉사를 위한 다짐도 함께 이야기 해 주세요.